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4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4. 하나님이 친히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초여름의 열기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설만한 그늘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걷느라 지칠 즈음이면 주님은 언제나 시원한 숲 그늘이 되어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고 있는 풍랑에 시달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할 곳에서도 조막손이 되기 일쑤였고, 평화의 씨를 심어야 할 자리에서도 단 열매만을 구하던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힘겨운 삶을 기쁨의 축제로 바꾸는 신앙의 연금술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1 ..... 인도자

♠ 교 독 문 ..... 10. 시편 27편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I. 박정숙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216. 아버지여 나의 맘을 ..... 다함께

성경봉독 ..... I. 엡4:17-24 ..... 인도자

II. 전7:15-18 ..... 김준호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헛 것과 참 것 ..... 김재흥 목사

II. 지나침을 경계하라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욕망의 그릇을 줄이면 감사의 열매가 커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 세상 도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날리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사랑할 수 있음이, 봉사할 수 있음이, 일할 수 있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힘겨울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향해 고개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뵈기 원합니다. 어긋난 길로 내딛기 일쑤인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에스겔 통독강좌(43)	에베소 강해(9)
기도: 문영혜 집사	기도 : 방문성 장로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인도자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조병주 권사

<b>6월</b>	영접위원	윤석철	김중수	박범희	김애경	표명화	박현우
	헌금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근중	김훈동	김필순	노순옥

## 고통의 신비

장미꽃에는 왜 가시가 돋치는가? 바다는 왜 해안선의 넓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가? 인간에 의해서 방출된 방사능선은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야 하는가? 인간의 육체는 왜 썩는가? 인간에게는 왜 고통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가?

자동차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당신은 당연히 결론 짓는다. 엔진은 특수한 설계에 의해 제작되는데 거기다 불필요한 부품을 끼워 넣었다면 엔진의 능력이 저하되거나 아주 중지되고 말 것이다.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아버지의 계획에 혼란을 일으켰으며 동시에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다. 죄를 짓기 전의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의 복종을 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면의 갈등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갈등 없는 질서와 균형의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린 인간은 자기 내면과 다른 인간들 및 세상 만물과의 사이에 갈등을 빚는 운명을 지게 되었다. 정신과 물질과의 결혼은 이제 깨어졌다. 이 양자의 이혼은 투쟁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다. 인간이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에 의한 것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 6:23)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을까? 물론이다. 자유의지를 박탈하면 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틀린 답안을 낼까 봐 시험 문제의 정답을 알려 주는 것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표시가 되겠는가? 아기가 넘어질까봐 걸음마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표시가 되겠는가? 아들이 나가서 말썽을 피울까봐 내보내지 않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표시가 되겠는가? 자유를 선택하는 사랑의 생활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

하신 표시가 되었겠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경우 상대방이 실수를 할까 봐 자유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오류와 실수와 고통을 초래할 위험이 있더라도 자유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

하나님께서 행여 인간의 죄악에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죄의 불가피한 결과인 고통엔들 어찌 즐거움을 느끼시겠는가?

고통은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 속에 일어난 커다란 혼란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을 고통에다 단순히 내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있는 힘을 다해 고통과 싸워라.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생과 적절한 음식섭취, 의약품, 여러 가지 과학적 발전 등으로, 인간가족의 고통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의 목표인 정의와 평화로, 자연의 반역적인 폭력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과학적 탐구와 기술과 노동으로써 투쟁하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에 대한 투쟁에 참가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당신이 이 투쟁을 효과적으로 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도끼를 뿌리에다 갖다 대어라. 다시 말해서 죄를 박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는 아무래도 완전히 뽑을 수는 없다. 고통은 우리 존재의 한 조건으로 남아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것이다. 당신은 고통을 자기 자신에 이롭도록 이용하는 길을 찾아보겠는가, 아니면 고통이 당신을 절망의 밤으로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두겠는가?

현대인들은 각종 부산물들을 부쩍 널리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유해한 공산물의 찌꺼기도 인간가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만일 신앙이 고통의 기원의 신비에 관해 빛을 던져 준다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용하는 비결에도 빛을 던져 줄 것이다. 당신은 죄의 부산물인 고통으로 하여금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공헌하도록 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리스도께 청하라—어떻게 당신은 사랑의 힘에 의해 고통을 구원의 원료로 사용하실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주십시오.

## ■ 마/음/으/로/읽/는/글

### 저와 함께 머무소서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영광과 생명으로 저를 가득 채우소서.  
저의 온몸을 소유하셔서  
저의 삶이 당신의 광채가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빛나시고, 저와 함께 머무셔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영혼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그들이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당신만을 우러르게 하소서.  
저와 함께 머무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처럼 빛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만큼 반짝일 것입니다.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설교하지 않고도 당신을 전하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으로 당신을 전하게 하시고,  
제가 하는 일의 호소력으로,  
저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품은 충만한 사랑으로  
당신을 보여주게 하소서. 아멘. (뉴먼 추기경)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유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인걸 문영혜 오진훈 노순옥 조관행 홍선희 김근종 정옥영 김윤수  
 박옥경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훈동 박정숙 강인식 김정숙  
 김시영 노용래 차혜심 박경원 홍순구 안홍숙 장영숙 김재흥 최희영  
 한인철 조윤숙 최인환 임보람

###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하정석 이명희 김홍기 최윤희 최주환 문복순 김성자  
 김미순 서정순 이봉배 송의섭 노미향 이은자 정원석 김현영

### 감사헌금:

김재흥 최희영 박옥순 이인섭 배삼순 김애경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지호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오송경	정두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정진경	곽권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이봉배	박경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문금석	진정숙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문복순	김경수
시온	박효선	허정윤	이인섭	송의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교회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강순배	이순정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구성실	이명희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박찬정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수진	안경숙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박미영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박혜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선교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시시오.
2. **새 교우 환영회** :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을 환영하는 모임이 다음 주일(19일) 오후 12시 20분부터 중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3. **동호회** : 다음 주일 오후는 동호회 활동 시간입니다. 즐겁고 유익한 사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오.
4. **직장심방** : 여러분의 일터로 점심 시간 무렵(화, 수, 금)에 찾아가겠습니다. 초대해주시시오.
5. **신앙실천** :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음식물 쓰레기 제로 운동에 다시 한번 동참하시오. 소박한 밥상에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 헌화 : 윤미경, 윤수진 (부모님 결혼 기념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